

화훼도감

화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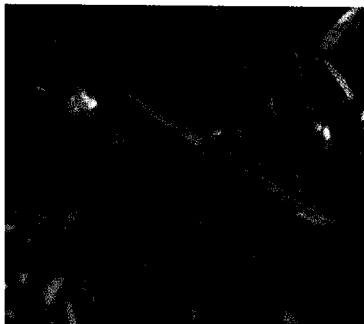
한경숙_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점균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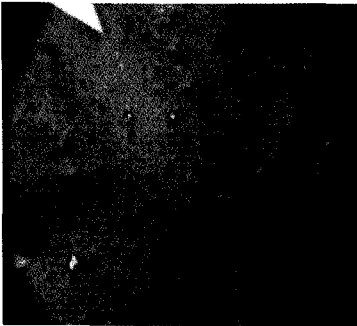
하룻밤 사이에 식물체 전면에 옅은 보라색 내지 회색의 정체 모를 물질이 형성된다. 병원체는 뚜렷한 형태가 없이 아메바형태로 토양이나 유기물 조각에 붙어 부생생활을 하며 기온이 높고 습할 때 갑자기 밀도가 높아지면서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 밤 사이에도 피해를 주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출하직전의 분화에서 발생하면 상품화가 어려워진다. 점균류는 따로 예방하거나 방제할 필요가 없으며 물에 씻어주면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엽류에 발생할 경우 상품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평소에 살균제를 거의 살포하지 않는 작물에서는 갑자기 발생하여 피해를 주기도 한다. 비가 계속내리거나 다습한 조건에 지속될 때 일반적인 살균제를 한 번만 살포해 주면 아주 잘 없어지기 때문에 예방도 어렵지는 않다.

조류피해



최근들어 비료를 물에 타서 식물체에 직접 살포하는 엽면시비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식물체 재배환경 조건에 따라 식물체 전면에 조류(藻類, algae)가 형성되어 피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조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하등생물로서 논이나 양액재배, 골프장, 양어장 등에서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방제방법으로는 이들 장소에서 조류퇴치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종증상



제라늄, 아이비, 파비안, 페페로미아, 베고니아 같이 잎이나 줄기가 두껍고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succulent) 품종에서 엽조직 표면에 액체가 고인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심한 경우 부풀어 오른 조직이 터지면서 더듬이 증상이나 궤양증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나타낸다. 수포의 크기는 1~2mm로 작은 수포들은 점차 증가하여 엽맥 사이사이에 빈틈없이 형성되기도 한다. 제라늄의 아이비(ivy)와 아이렌(irene) 품종에서 특히 병징이 심하여 옅은 갈색을 나타내고, 수포가 합쳐지고 터져서 궤양증상으로 발전하여 잎 뒷면이 갈색 코르크처럼 변한다.

파리류피해



인삼벤자민의 잎이 검정색으로 썩고 마르는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 감염된 부위는 약간 부풀어 있는 특이한 증상을 나타낸다. 부분 잎 조직을 떼어내면 주황색의 번데기 또는 어린 유충이 존재한다. 파리류가 잎에 산란하여 피해를 나타낸 것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피해로 판단되지만 농가에서는 상품출하가 불가능하다. 외부온도가 쌀쌀해지는 가을철에는 하우스 주변의 해충들이 유입되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외부 방충망시설이 필요하다.

잎선충



푸미라의 완전히 전개된 상위엽이 엽맥을 따라 각이 지면서 적갈색의 얼룩무늬가 형성되며, 차츰 앞끝부터 말라 낙엽이 진다. 병든 잎을 잘라 물방울에 담가 놓은 후 현미경으로 관찰할 경우 가느다란 선충이 잎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화학적 방제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건전한 모주로부터 삽수를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잎선충은 대부분 삽목에 의한 묘에 의해 전파되므로 조직배양한 묘나 감염되지 않은 모주를 사용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감염된 식물체는 뽑아서 땅속에 묻거나 태워버린다. 모주는 철저히 제거한다. 포장 주위의 잡초방제를 철저히 한다. 잡초는 겨울눈에서 월동하여 다음해 전염원이 되므로 포장 주위의 제초작업을 철저히 한다.

그을음병



팔레놉시스 잎, 덴파레 꽃봉오리, 고무나무 잎에 검은색 곰팡이가 마치 그을음을 발라 놓은 것 같이 생긴다. 대부분의 그을음병은 진딧물, 깍지벌레 등이 식물체를 가해한 후 그 분비물을 섭취함으로써 곰팡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충유무를 살펴야 한다. 그러나 식물에 따라서는 일액현상 또는 증상작용의 일환으로 식물체액을 분비하게 되고 당분이 많은 분비액에 그을음이 심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형성된 식물체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낮아서 출하가 곤란해진다. ㉞